

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 출장보고서

1. 국외출장 목적

- 보건복지부 용역과제인 "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" 수행을 위해 주요 복지선진국인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를 방문하여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 등의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,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

2. 국외출장 개요

- 출장자 : 윤석명, 이힘찬, 보건복지부(김문식, 이선영)
- 장소 : 스웨덴(스톡홀름), 덴마크(코펜하겐, 힐레뢰드), 핀란드(헬싱키)
- 방문기관 :
 - 스웨덴(Swedish Pensions Agency, MinPension.se, Södertörn 대학)
 - 덴마크(ATP, Danish Insurance Association, PensionsDenmark, Ministry of Social Affairs, Ministry of Employment)
 - 핀란드(Finish Center for Pension, Federation of Finish Financial Services, KELA)
- 일정 : 2012년 9월 16일 ~ 2012년 9월 27일

○ 세부일정

날짜	행선지	방문기관 및 주요참석자	활동사항
2012. 9.16 (일)	인천-프랑크푸르트-스톡홀름	이동	- 스웨덴 스톡홀름 도착
2012. 9.17 (월) 오전	스웨덴/스톡홀름	MinPension.se / Anders Lundström 등	- 스웨덴 연금포털 운영 관련 발표 및 토론 - 통역 : 정영은
2012. 9.17 (월) 오후	스웨덴/스톡홀름	Swedish Pensions Agency / Lena Larsson 등	- 스웨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회의 개최 - Premium Pension의 Governance 구조 및 기금 운영 현황 전문가 면담 및 토론 - 현지 TV 인터뷰 - 통역 : 정영은
2012. 9.18 (화)	스웨덴/스톡홀름	Södertörn 대학 / 최연혁 등	-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 개최 - 통역 : 정영은
2012. 9.19 (수)	스톡홀름 - 코펜하겐	이동	- 코펜하겐 도착
2012. 9.20 (목) 오전	덴마크/힐레뢰드	ATP(Arbejdsmarkedets TillægsPension) / Ole Beier Sørensen 등	- 덴마크 공·사적 연금제도 현황 자료수집 - 도시간 이동에 차량 렌트 (코펜하겐-힐레뢰드-코펜하겐)
2012. 9.20 (목) 오후	덴마크/코펜하겐	Danish Insurance Association / Leif Kvistgaard 등	- 덴마크 연금정보제공시스템 관련 회의 개최 - 연금포털사이트 시연
2012. 9.21 (금) 오전	덴마크/코펜하겐	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/ Anders Dupont Dall 등 Ministry of Employment / Bent Nielsen 등	- 덴마크 연금제도 개혁 관련 발표 및 자료 수집 -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등 관련자료 수집

2012. 9. 21 (금) 오후	덴마크/코펜하겐	PensionsDenmark / Jens-Christian Stougaard 등	- 덴마크 직역연금 관련 발표 및 자료 수집 - 덴마크 공사연금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
2012. 9. 22 (토)	덴마크/코펜하겐	주말	해당없음.
2012. 9. 23 (일)	코펜하겐 - 헬싱키	이동	- 헬싱키 도착
2012. 9. 24 (월)	핀란드 /헬싱키	Finnish Center for Pension / Hannu Uusitalo 등	- 핀란드 공사연금 관련 정보수집 및 토론 -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발제 및 질의응답 - 핀란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회의 개최
2012. 9. 25 (화) 오전	핀란드 /헬싱키	KELA(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) / Teemu Ha"nninen 등	- 핀란드 국민연금 및 최저보증연금 관련 발표 및 토론
2012. 9. 25 (화) 오후	핀란드 /헬싱키	Federation of Finnish Financial Services / Timo Silvola 등	- 핀란드 연금재정 관련 발표 및 토론
2012. 9. 26 (수)	헬싱키-파리-인천	이동 및 귀국	- 26일 출발, 27일 도착

3. 주요활동사항

□ 스웨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회의(2012.9.17)

- 은퇴 관련 현황
 - 65세 은퇴가 가장 많으며 은퇴연령은 2005년 이후 증가
 - 평균적으로 남성의 은퇴시기가 여성보다 높으나 격차는 감소
 - 고학력자가 늦게 은퇴하는 경향이 있음.
 - 은퇴시기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등이 존재
 - 자신이 원하면 67세까지 고용보장 받을 수 있음.

- 노후 급여 관련 지출은 집중하여 2014년에는 총 3000억SEK(한화 약 50조원)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, 이 중 연금급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
-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현황
 -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및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, 1998년 큰 폭의 연금개혁 실시
 - 공적연금은 명목확정기여(NDC)방식을 중심으로 일부 적립확정기여(FDC)방식으로 구성
 - 직역연금은 지난 10년간 DB형에서 DC형으로 변화하였으며, 임노동자의 90%를 포괄함.
 - 사적연금은 임노동자의 약 40%가 가입하였으며, 일인당 연평균 6,500SEK 납입

□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관련 간담회(2012.9.18)

- 렌-마이드너 모델(1950~1980년대)로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
 - 살츠웨바덴 협약(1938), 연대임금정책을 통한 사회통합, 기업경쟁력 제고
 - 1970년대 임노동자기금 논쟁으로 사회통합 악화
- 1980년대 자본자유화를 통해 긴축재정정책이 완화되면서 1991년 재정위기 발생
- 복지축소(1990년대)를 통해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2000년대 다시 경제발전
 - 세계화 등으로 인해 완전고용은 불가능해짐.
 -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

□ 덴마크 연금정보제공시스템 관련 회의(2012.9.20)

- 덴마크 연금포털(PensionsInfo)의 역할
 - 민간 비영리기관이 인터넷으로 개인에게 연금정보제공
 - 개인이 연금에 대한 권리나 보장범위를 알고 싶거나 은퇴 관련 결정에 따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함.

- 각 연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 표준화
- 한 화면에서 자신의 연금액을 확인 가능
 - 물가, 이자율, 투자수익 등에 근거하여 예상연금액 추정

○ 연금포털의 운영

-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가 보증
- 연간 150만 유로의 예산을 연금 공급자들에게 지원받아 운영
 - 125개에 달하는 각종 연금 및 보험회사, 각 지역연금기금, 은행, ATP 등이 참여하고 있음.

□ 덴마크 공사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(2012.9.21)

○ 덴마크 연금제도의 주요 이슈

-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여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동시에 존재함.
- 65세 인구가 2010년 약 900만명에서 2050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이에 따라 연금지출 확대 및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 우려

○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연금제도

- 조기은퇴 관련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축소를 통해 은퇴시기 연장
 - 사적연금의 지급 최저연령을 높임.
 - 조기은퇴 연령을 연기
-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비중은 낮추고, 사적연금의 비중을 확대

□ 핀란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회의(2012.9.24)

○ 핀란드 사회보장체제의 미래 전망

- 유럽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우려
 - 노인부양비가 현 25% 수준에서 2050년대에는 50%를 넘을 것으로 전망
 - 공공분야 적자가 GDP의 5%
 - 경제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지 못하고 있음.

○ 대응방안

- 2017년에 연금개혁 예정
- 2010년 60.4세인 은퇴연령을 2025년까지 62.4세까지 늦추기 위해 노력

4. 국외출장 결과 및 향후과제

□ 국외출장 결과

- 복지선진국인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 역시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장기재정 문제를 안고 있음.
 - 기존의 관대한 복지제도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개혁하는 추세

□ 향후일정

- 본 출장에서 논의된 결과를 과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용할 계획임.